

“우리의 목소리가 닿길 바라요”

리더십과 인권 운동 참여에 있어 탈북 여성이 겪는 장벽

개요

본 보고서는 탈북 여성 178 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북한 관련 시민 단체에 참여하고 나아가 리더의 자리에 가기까지 직면하는 어려움을 설명한다.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젠더¹ 기반의 문화적 선입견이나 대표성의 부재 등 탈북 여성이 직면한 많은 제약에 대해 시민 단체, 후원 기관, 자선 단체, 언론을 포함한 다양한 청중을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탈북 여성의 북한 인권 운동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개발의 기반을 제공하려 한다.

또한 본 보고서는 북한 관련 시민 단체에 구직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탈북 여성들이 직면한 독특한 도전에 주목한다. 탈북민²이라는 정체성과 여성이라는 젠더에 기반한 차별이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장벽은 탈북 여성의 포부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고용 접근성 부족과 불공정한 대우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유리천장을 만들어 탈북 여성이 간접적 형태의 차별을 겪게 만든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우리 사회 속 깊이 뿌리박힌 사회·문화적 통념에 의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더 많은 탈북 여성을 북한 관련 시민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성평등이 모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대표적이며 합법적인 시민 사회의 기본이 될 것임을 밝혀내었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더 나은 단체의 형성으로 이어지려면 북한 디아스포라³속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시민 사회를 재편하고 그들이 가장 심각하다 여기는 북한 인권 문제 - 인신매매 및 젠더 기반 폭력-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권을 옹호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결과적으로 성평등을 우선하는 북한 인권 옹호 활동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량 인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 북한 디아스포라의 과반수가 여성임을 감안, 탈북 여성의 경험은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 관련 시민 단체 내에서 그들이 경험한 인권 침해나 여성에게 특화된 인권 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그러한 단체에 구직하려는 많은 탈북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 대한민국 내에는 아직까지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이 만연하며, 그 결과 탈북 여성들이 의식적으로 탈북민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거리를 두어, 북한 관련 시민 단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장벽을 만든다.

젠더에 기반한 차별

- 꿈임없이 지속되는 사회·문화적 규범은 탈북 여성들에게 가족과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구직을 미루거나 직장을 떠나 직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관련 시민 단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는 탈북 여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은 북한 관련 시민 단체에 있어 탈북 여성이 다른 탈북 여성 지도자를 알지 못하거나 직장 내 양성 평등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불공평한 고용 기회

- 부적합한 구인 방식, 저임금 일자리라는 지속적인 인식, 그리고 깨지지 않는 유리천장으로 인해 많은 탈북 여성들이 북한 관련 시민 단체의 취업을 단념하고 있다.
-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여성 롤모델의 존재는 탈북 여성들이 북한 관련 시민 단체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 및 경험이 부족하다는 인식

- 탈북 여성들은 북한 관련 시민 단체에 취업하기에 필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 사회 참여와 리더십 경험이 부족하다.
- 탈북 여성들에게 북한 인권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은 중요하며, 이들 중 다수는 여성 인권 단체 및 한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향후 과제

탈북 여성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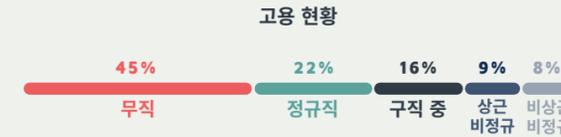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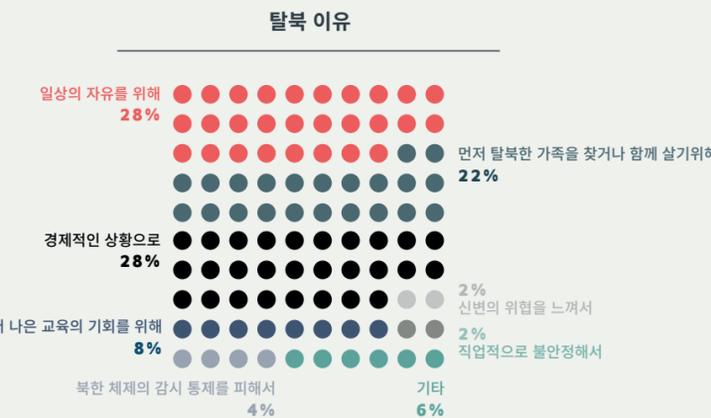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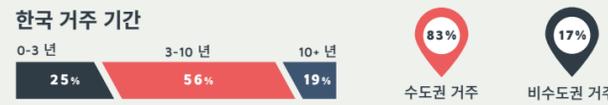
- 북한 관련 시민 단체 간의 지역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현재 북한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지 않는 국가 단체를 포함하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며, 탈북 여성을 위한 인권 운동을 세계로 확장시킨다.
-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공동체 내의 여성과 남성이 함께 “우리 없이는 우리의 이야기도 없다” 라는 목소리를 낸다.
- 북한 인권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단체 및 리더십 구조를 탐구함으로써 북한 관련 시민 단체 내에서 인권 활동과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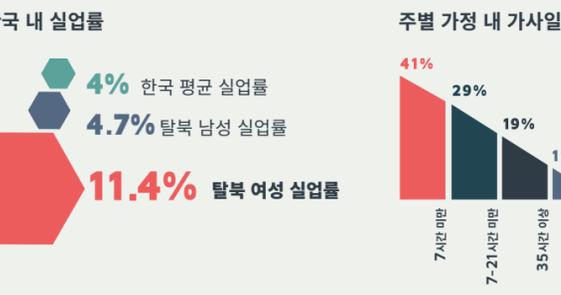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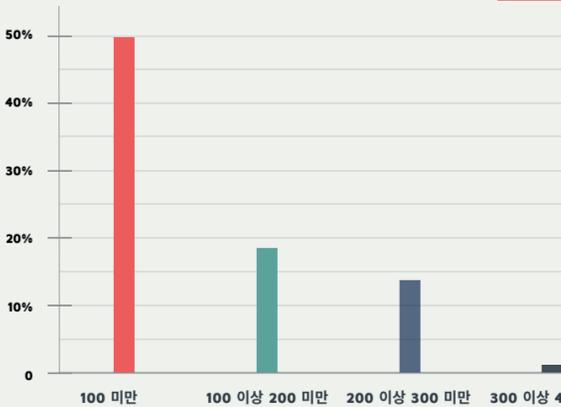
- 여성들의 돌봄 책임⁴을 인지하는 등, 한국 내 탈북 여성의 실제 삶을 더 잘 반영하도록 직장 문화를 재구성한다.
- 탈북 여성이 북한 관련 시민 단체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그들이 해당 역할에 지원 시 여러 탈북 여성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채용 및 훈련 시스템을 도입한다.
- 재임 중인 지도부로 인해 탈북 여성이 지도부의 직책을 새로이 맡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리더십의 순환 또는 조직적인 계급 구조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시민 단체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고려한다.

후원 기관 및 단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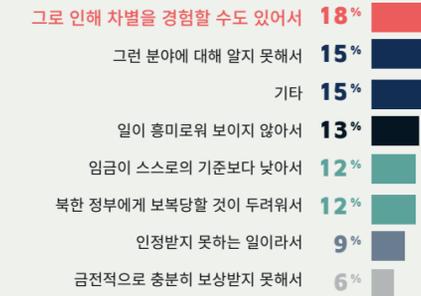
- 탈북 학생 대안 학교, 대학 및 기타 사회 단체를 통한 멘토링과 훈련을 제공해 탈북 여성들의 시민 단체 구직을 도모한다.
- 여성이 주도하는 북한 관련 시민 단체를 위한 새로운 자금과 지원 체계가 어떻게 그들의 재정적 안정을 강화하고 탈북 여성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 북한 관련 시민 단체가 성평등 측면에서의 감사, 변화에 민감한 업무 구조, 공정한 채용 과정을 단체의 문화와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해 직장 내 성평등을 이끌어낸다.
- 북한 인권에 대한 연구와 옹호를 지원하는 시민 단체가 젠더의 영향력과 북한 여성의 경험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도록 권장한다.



월평균 소득수준 (단위: 만원)
 *1 원=0.00090 달러
 대한민국 최저 시급 = 8,720원 (7.85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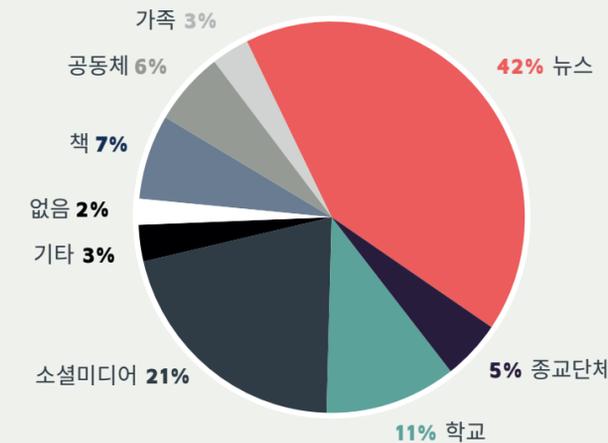


북한인권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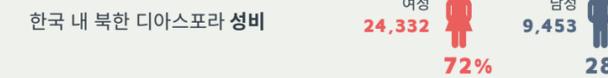
63% 북한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읽는 행동에서 정신적 혹은 감정적인 충격을 받는다

대부분의 북한 인권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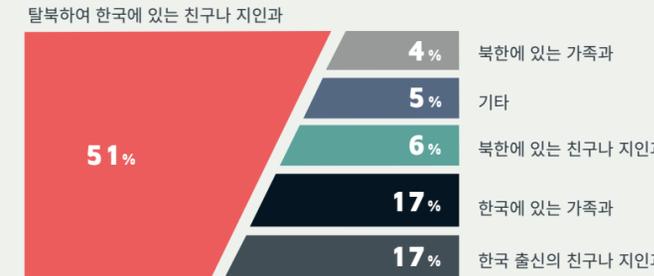
한국에서 정식 인권 교육을 받은 빈도

(하나원과 하나센터 등에서)



- 60% 직업적 기회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인맥 혹은 연줄이 없다
- 48% 구직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등)
- 75% 북한 인권 단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다
- 37% 북한 인권 단체에서 필요한 자질이 부족해 해당 단체에 구직에 자신이 없다
- 70% 좀 더 많은 여성이 북한 인권 단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해당 단체 참여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 70% 성평등을 우선시하는 단체에서 일하고 싶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북한 인권 문제



68% 남성보다 여성 지도자의 수가 적은 이유가 여성은 가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인권 분야에 더 많은 여성 지도자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87% YES 13% NO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다

18% YES 72% NO

탈북민이 한국 사람에게 북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81% YES 19% NO

¹젠더 (Gender):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여성 및 남성의 역할, 신념 체계, 태도, 가치, 이미지, 기대 등을 뜻하는 단어로 자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생물학적인 성(Sex)과는 비교되는 개념이다. 젠더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사고체계가기 때문에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다르거나 변할 수 있다.

² 탈북민 (North Korean Exile):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 중 법률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단어이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 귀순자, 새터민 등이 있다.

³디아스포라 (Diaspora):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며 정체성과 민족성을 상실하지 않고 세대교체를 반복하여 온 이민자와 그들의 후손이 이룬 공동체를 뜻한다. 이주민, 난민, 초빙 노동자, 망명자, 소수 민족의 공동체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어원을 가진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⁴돌봄 책임 (Care Responsibility):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돌봄이라고 한다. 가부장적인 사회와 문화를 통해서 돌봄이 여성들에게 보다 적합하다는 관념이 발전되었고 그에 따라 여성들에게 그 역할이 할당된 것을 돌봄 책임이라 한다.

© 2021 Korea Future



koreafuture.org

한미미래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등록번호 1185332)

본 보고서는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으나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한미미래의 의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음을 밝힌다.